

KP케미칼, 중국기업 인수 가능성!

중국계 펀드 입찰조건 유리 ... TPA 건설보다 한국기업 인수 유리

KP케미칼의 매각결정이 빠르면 3월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KC홀딩스에 중국계 펀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KP케미칼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남석유화학과 KC홀딩스는 2004년 1월 선정된 이후 인수의향서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석유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KC홀딩스가 제시한 인수조건이 호남석유화학보다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이 표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며 KP케미칼이 KC홀딩스에 매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KP케미칼 매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KC홀딩스는 론스타펀드 계열이 아닌 전혀 다른 펀드이며 중국계 자본이 펀드에 참여하고 있다”며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3월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KP케미칼 매각에 따른 인수제안서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호남석유화학과 KC홀딩스 중 어떤 쪽이 인수가 유력하냐는 물음에는 “아직까지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KC홀딩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시장에서의 소문을 부정하고 있다.

그동안 KC홀딩스의 구성원을 놓고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추측이 무성했는데 구체적인 기업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중국계 펀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국계 펀드가 무슨 목적으로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의도파악에 호남석유화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는 “중국 TPA(Terephthalic Acid) 신·증설이 매우 어려워 그동안 많은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신·증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행된 적이 없다”고 밝혀 TPA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KP케미칼 매각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이 KP케미칼에 관심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TPA가 아닌 P-X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석유화학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다운스트림에 집중돼 있어 Polyester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TPA 신·증설은 가능하나 M-X(Meta-Xylene), P-X(Para-Xylene), BTX(Benzene Toluene Xylene) 시설 등 기초원료 생산시설에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KP케미칼을 통해 P-X 및 TPA를 공급받는 것이 중국에 TPA 공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중국기업에 큰 투자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KP케미칼의 TPA 생산능력은 100만톤으로 국내 3위이며 P-X는 70만톤, O-X(Ortho-Xylene)는 25만톤으로 P-X부터 TPA까지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08>